

“불교와 컴 배우러 오세요”

청주 디지털 청소년 열린상담실 수련회 준비로 분주

부모님이 모두 직장에 나가면 은지(10)는 늘 혼자다. 그러나 은지는 외롭지 않다. 집에 없는 컴퓨터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배고프면 언니, 오빠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먹을 수도 있는 또 다른 집이 있기 때문이다.

은지가 사는 동네는 청주시 상당구 수동. 디지털 열린 상담실은 청주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이곳 우암산 기슭에 위치해 있다. 은지는 단독주택을 개조한 이곳 상담실을 매일 찾는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가 7대나 있고 대형 텔레비전으로 케이블 TV 및 비디오 시청, 독서, 음악감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아바같은 스님이 항상 말벗이 되어준다.



◇달동네 아이들이 방학기간 가장 열심히 드나드는 디지털 열린상담실의 동계수련회는 컴퓨터도 배우고 불교도 배우는 기회다.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이곳 상담실은 은지 또래의 아이들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모두가 내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한달 이용자만도 7~800여명. 정보소외지역인 이곳 달동네에 유일한 정보접근지역이자 열린공간이다.

요즘 은지는 아예 상담실에서 살고 싶다. 1월 25~27일 열리는 디지털 동계 수련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언니, 오빠들이 더 많이 상담실에 오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또 기다리던 동계수련대회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언니, 오빠들의 얼굴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진다. 디지털 열린 상담실은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간사진들이 정은스님과 함께 지역 소년소녀가장, 불우청소년 등

노래·PC방 24시간 무료이용, 인기 ‘짱’ 청소년 100여명 초청, 프로그램 다양

100여명의 학생들을 초청해 수련회를 갖는다. 상담실 인근 불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피시방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종의 퓨전 수련회.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 매년 수련회를 열 때마다 목동이 들어가 경제적으로 다소 힘들지만 상담실 지도법사 정은스님은 수련회 준비 및 진행을 모두 간사진에게 일임했다. 간사진들은 매일 상담실에 모여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수련회를 준비하기에 분주하다. 정은스님은 “어린시절 가난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며 “매년 실시되는 디지털 동계 수련회지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nia.com

IT당신

차기정부 IT비전 캐치플레이스 공모

정보통신부(장관 이상철)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차기정부의 IT비전 캐치플레이스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주제는 IT를 중심으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 전반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응모 희망자는 15자 내외로 작성하여 전자우편(dppark@mic.go.kr)으로 응모하면 된다. 최우수상, 우수상 각각 1편씩 100만원과 50만원 등 총 상금 210만원이 지급된다.

무인 우체국 연내 등장 우편·금융서비스 계획

우정사업본부는 올 하반기중 대학 두 곳을 선정,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 우체국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설치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무인우체국은 무인우편창구시스템과 현금자동지급기(ATM)를 설치해 우편접수와 수신, 입출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정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직원 2~3명이 상주하던 소규모 우체국을 무인우체국이 대체해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게시판 엿보기

○...허공은 일체를 포함하고 있지만 소유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 다진정한 무소유는 물질의 무소유가 아니라 마음이 허공처럼 물들지 아니하고 일체를 수용하되 분별하지도 집착 아니함이 진정한 무소유다. 청광, 운문사 홈페이지 게시판

○...공부는 스스로 해야 할 것이니, 깨달음도 스스로 열어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정명보살, 의암재 홈페이지 게시판

○...하고 뱀을 말이라도 서로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다 못사는 세상 험한말하고살면 더 오래 산다니까. 좋은 말 하고 서로 좋은 점만 보고 살아가는 눈으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가?

osim02, 한반도의 불교여행 토론방

○...우리모두가 초발심으로 돌아갔으면 해요. 갓난아이의 맑은 눈빛처럼 맑고.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마음을 밝혔으면 합니다.... 따뜻한 차 한잔처럼 세상을 그처럼 해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합니다... 이만형, 서종사 홈페이지 다년간 글

우리절 Digital·cyber 불사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창립 10여년만에 신도수 7만여명 규모로 급성장한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홈페이지 운영 등 IT분야에서도 남다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비결은 오픈프라인 모두에서 사찰과 스님중심이 아닌 신도중심으로 각종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미 인터넷 상 포하나의 사이버 사찰로 자리매김 한 영남불교대학관음사의 홈페이지는 99년 10월 첫선을 보인 이래 사이버대학 및 인터넷 방송국을 함께 운영하면서 수많은 불자 및 네티즌들의 관심속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영남불교대학관음사의 홈페이지는 우선, 만들어만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사 회주 우학스님의 신행문답까지도 동영상 멀티미디어로 바로바로 서비스되고 있다.

2000년 9월 개원한 사이버불교대학도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의 또하나의 자랑거리. 불법을 배우고 싶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서울과 부산 등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불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기존의 통신과정과는 차별화된 양질의 양방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매년 400여명이 수강하고 있는 영남불교대학관음사 사이버불교대학은 오픈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의의 모든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동일하게 서비스 하고 있어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참가자들 대부분이 만족해 하고 있다.

영남불교대학관음사는 특히, 녹화된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해 비정규적으로 업데이

자체 사이버팀 관리, 수시로 업데이트

신행문답, 동영상 멀티미디어로 제공



◇관음사의 신도들은 홈페이지 운영에 직접 참가한다. 사진은 운영 소임자들의 회의 장면.

지 않는 불교계 여타의 홈페이지와는 달리 제작에서부터 관리를 모두 자체 사이버팀에서 도맡아 진행해 오고 있어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 이로 인해 불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어 직접 접해 나오지 않고도 원하는 소식을 바로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의 내용면에서도 단순히 사찰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영남불교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법회 등의 대부분의 행사를 비롯하여 영남불교대학관음

사는 수준이었던 지금까지의 불교인터넷 방송국을 2004년부터는 정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디지털 방송기자재를 구비하는 등 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인터넷방송국의 주 사용자층을 청소년 층으로 보고 이들 젊은 네티즌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쉽고 다양하며 재미있는 내용의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 모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영남불교대학관음사는 총 4대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박원구 기자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라마 조파 린포체

체험담, 포토와 이미지 등 서비스

라마 조파 린포체의 홈(www.lamazopa.com)은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하다. 라마 조파 린포체는 라와도 라마의 환생으로 여겨지고 있는 스님으로 1946년에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맥 근처에서 태어났다. 이미 4살 때 라와도 라마의 환생으로 인정받아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

‘린포체와 만남’ 코너에서는 행복으로의 여행, 귀중한 구루, 지나간 삶, 라와도 라마, 젊은 린포체의 순례, 수도원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준비, 카르마, 공, 다르마, 매일 매일의 명상, 신성한 목적, 보시, 앞드림, 탐, 감격스런 단어 등의 ‘나의 완벽한 스승’ 코너도 있다. 여기서는 법륜을 굴리는 의미와 공덕에 대한 설명도 있고 체험담도 담겨 있다. ‘포토와 이미지’ 코너에서는 린포체의 가족, 사진첩, 부처님, 상가 등의 이미지들을 서비스한다.

라마 조파 린포체의 홈페이지에서는 유희, 라마, 쿤둔 등 각종 타벳불교관련 서적, 영화 테이프 등도 살 수 있다.

강지연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인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